



우리 손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해요!

+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페이스북



고양시 청참위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자 나라의 동력이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손으로 정책과 제를 발굴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어떨까. 여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제6대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의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 031-995-4173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정책

고양특례시에서는 미래의 주인이자 동력인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토론하는 장이 매월 펼쳐진다.

올해로 6대를 맞는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위원회 제안 중 '다문화 청소년 학업 및 활동 지원 정책'의 경우 실제 사업에 반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쾌거를 이뤘다. 위원회가 제안한 '다문화 청소년'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좀 더 폭넓게 추진된 것이다. 지난 9월에는 '특례시의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주최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시의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올해 공식 출범한 제6대 위원회는 엄격한 면접심사를 통과한 청소년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서 고양시의원과과의 토크콘서트, 캠페인 활동, 축제부스를 운영하였고, 고양 특례시 청소년을 대표해 분과별 정책 제안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이다슬 (부위원장)

청소년의 고유 경험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그 정책을 누리고 즐겼으면 하는 게 제 목표이자 각오입니다.



조윤슬 (위원)

일생에 한 번뿐인 청소년기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청소년들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게 뜨겁다. 위원들은 평소 학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도 주말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그동안 쌓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간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 문화, 안전, 인권 등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제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모두가 젊은 열정을 발산하며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정책 제안서를 멋들어지게 작성했다. 정책모니터링도 빠짐없이 하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이뿐 아니다. 다른 청소년참여기구들과 연합활동을 하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도 소통하는 등 활동 보폭도 넓히고 있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해,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소년 참여위원회. 작지만 강한 청소년들이 만들어 낼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기대해본다.